



발행인 방하남  
편집인 성재민  
편집교정 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8  
FAX 044-287-6089

2016년 12월 1일

## 2016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7년 고용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5(hsjung@kli.re.kr)

경기둔화와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2016년(1~10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도에 비해 둔화된 전년동기대비 296천 명 증가, 고용률은 0.1%p 증가한 60.4%, 실업률은 0.1%p 증가한 3.8%를 기록하였다. 청년층은 20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하였지만, 안 좋은 경제여건으로 인해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증가하였고, 55세 이상 고령층은 간병인과 청소원 같은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의 하방압력을 지탱 중이다. 내년 취업자 수는 하반기 들어 경기여건이 개선된다면 다소 증가폭이 커질 수 있겠지만,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률은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온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I. 2016년 노동시장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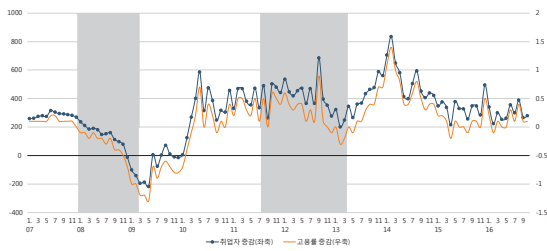
2016년 1~10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96천 명 증가하여 2015년(1~10월 평균 326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둔화 추세는 그동안 인구구조 측면에서 취업자 수 증가와 관련하여 큰 역할을 했던 50대 인구 증가의 둔화와 함께 올해 들어 분명해진 (건설업을 제외한) 경기둔화와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2016년(1~10월 평균) 고용률은 0.1%p 증가한 60.4%를 기록했다. 15~64세 인구 고용률은 0.3%p 증가해 66.0%를 기록했다. 한편 실업자는 40천 명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3.8%로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하였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6년 실업률은 3.7% 정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는데, 국제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온 2010년 3.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6년 1~10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296천 명으로 둔화

[그림 1]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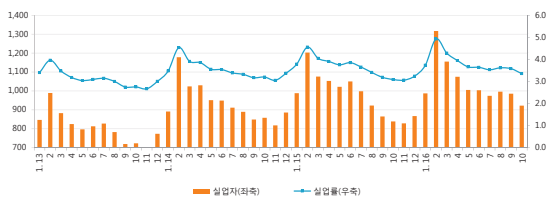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II. 2016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 1. 20대 졸업생 중심으로 청년층 취업자, 실업자 동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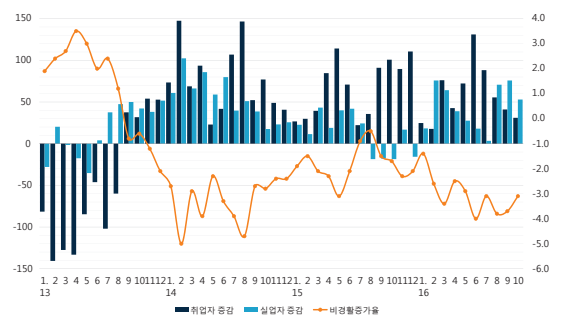
2016년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 크게 증가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감소했다. 2016년 1~10월 평균 청년층 취업자는 58천 명 증가하였는데, 2016년 6월 131천 명 증가를 기점으로 점점 그 증가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실업자는 1~10월 평균 44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5년 같은 기간 증가폭(15천 명)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로 인해 20대 실업률은 1~10월 평균 2000년 이래 최고치인 10.1%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동시 증가는 취업자, 실업자가 각각 66천 명, 37천 명 증가한 20대 후반(25~29세)에서 주로 나타났다.

### 2. 핵심연령층(30~40대) 취업자 감소 및 50대 취업자 증가폭 둔화

국제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어오던 50대 취업자 증가폭이 2015년 1~10월 평균(151천 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90천 명 증가로 축소되었다. 이는 경기둔화뿐 아니라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연령대가 50대 중반~60대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50대 인구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도

[그림 3] 청년층(15~29세) 취업자, 실업자 증감(좌축)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우축)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1~10월 평균			
		2013	2014	2015	2016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42,063 (1.3)	42,474 (1.0)	42,981 (1.2)	43,389 (0.9)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5,852 (1.3)	26,538 (2.7)	26,912 (1.4)	27,249 (1.2)
	취업자 (증가율)	25,031 (1.4)	25,584 (2.2)	25,910 (1.3)	26,206 (1.1)
	(증가수)	(348)	(554)	(326)	(296)
	참가율 (남성)	61.5 (73.2)	62.5 (74.1)	62.6 (73.9)	62.8 (73.9)
	(여성)	(50.2)	(51.4)	(51.8)	(52.1)
	고용률 (남성)	59.5 (70.7)	60.2 (71.4)	60.3 (71.1)	60.4 (71.0)
	(여성)	(48.8)	(49.6)	(49.9)	(50.2)
	실업자	821	953	1,002	1,042
15~64세	실업률 (남성)	3.2 (3.4)	3.6 (3.6)	3.7 (3.8)	3.8 (3.9)
	(여성)	(2.9)	(3.6)	(3.7)	(3.7)
	비경황 (증가율)	16,212 (1.2)	15,936 (-1.7)	16,069 (0.8)	16,140 (0.4)
	참가율 (남성)	66.5 (77.5)	67.8 (78.6)	68.3 (78.7)	68.7 (78.9)
	(여성)	(55.5)	(57.0)	(57.8)	(58.3)
	고용률 (남성)	64.3 (74.8)	65.3 (75.7)	65.7 (75.7)	66.0 (75.7)
	(여성)	(53.8)	(54.9)	(55.6)	(56.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베이비부머의 연령대가 50대 중반~60대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50대 인구 증가폭 둔화

〈표 2〉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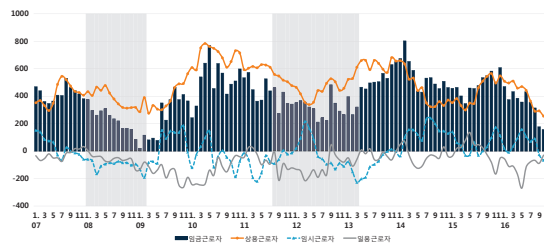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생산가능인구 증감		
	2014. 1~10	2015. 1~10	2016. 1~10	2016. 1~10	2014. 1~10	2015. 1~10	2016. 1~10
전 체	554	326	296	26,206	410	507	408
15~29세	83	62	58	3,992	-42	-16	-54
15~19세	24	-1	-6	242	-73	-74	-104
20대	59	62	64	3,750	31	57	50
20~24세	86	65	-2	1,420	83	49	0
25~29세	-27	-3	66	2,330	-52	9	50
30대	-19	-39	-35	5,638	-112	-85	-85
30~34세	15	-39	-138	2,733	-44	-116	-154
35~39세	-34	-1	102	2,905	-67	31	69
40대	45	-15	-25	6,639	-19	-20	-50
50대	246	151	90	6,070	210	187	127
60세 이상	199	169	209	3,868	373	442	47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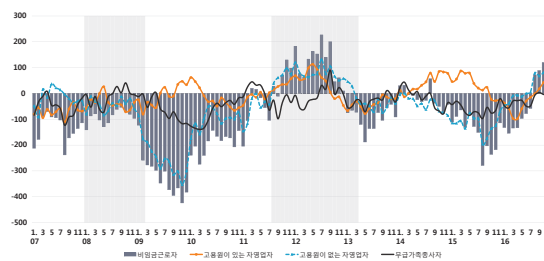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비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50대 인구 증가폭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현상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전체적인 취업자 수 증가폭도 이 영향을 받아 축소될 전망이다. 이들이 60대에 진입하면서 60세 이상 인구 증가폭이 커지고는 있지만, 은퇴연령대라는 특성상 인구 증가폭만큼 취업자 수가 늘지는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30대와 40대는 인구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각각 35천 명, 25천 명 감소하였다. 30대는 여성은 증가했으나, 남성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여기에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30대 초반 제조업 남성 취업자는 2016년 1~10월 평균 38천 명 감소했으며, 30대 후반에서는 평균 12천 명가량 감소했다. 한편 40대 남성의 경우 1~10월 평균 제조업 취업자 13천 명 증가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증가는 3/4분기 들어 다시 32천 명 감소로 전환되며 30대 남성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0대 여성 취업자는 금융보험업, 보건복지업에서 각각 26천 명, 16천 명 증가했지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47천 명, 제조업에서 14천 명 감소하며 전체 11천 명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상용직 증가폭 둔화 및 자영업자 증가 전환

종사상지위로 보면 그동안 임금근로자 증가를 주도해왔던 상용직 증가폭 축소가 크게 나타났다. 상용직은 2016년 1~10월 평균 409천 명 증가했지만, 2016년 1/4분기 518천 명, 2/4분기 457천 명, 3/4분기 316천 명 증가로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제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제조업 상용직 근로자가 감소(3/4분기 -82천 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영향을 받아 임금근로자 증가폭도 2016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283천 명으로 축소된 상태이며, 특히 2016년 9월과 10월은 전년동월비 각각 178천 명 ↑, 158천 명 ↑까지 축소되었다. 이 수치는 국제금융위기를 빠져나온 이후 최저치이다. 또한 일용직도 도소매업(1~10월 평균 -74천 명)에서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1~10월 평균 -110천 명 감소하였으며, 일용직 감소는 전 연령대에서 관찰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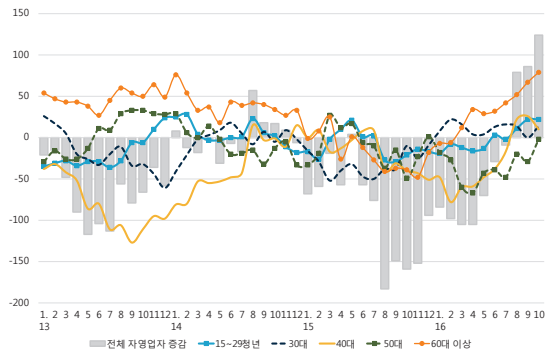
임금근로자 증가를 주도해왔던  
상용직 증가폭 축소

30대와 40대 인구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 감소

2016년 상반기 이후 자영업자  
모두 증가 전환

[그림 6] 자영업자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자영업자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1~10월 평균	분기별		
	2016	2016 1/4분기	2016 2/4분기	2016 3/4분기
전 체	-21	-96	-68	52
[A,B] 농림어업 및 광업	-39	-29	-42	-49
[C] 제조업	13	-10	16	24
[D] 전기, 가스, 수도	0	0	-1	0
[E] 하수 및 환경	1	0	0	2
[F] 건설업	-16	-8	-19	-18
[G] 도매 및 소매업	-2	-29	-15	24
[H] 운수업	-6	-9	0	-9
[I] 숙박 및 음식점업	35	37	24	39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11	5	14	17
[K] 금융 및 보험업	2	0	1	1
[L] 부동산 및 임대업	22	19	20	26
[M] 전문과학	-7	-12	-6	-5
[N] 사업시설 서비스업	-2	-7	-3	3
[P] 교육 서비스업	-15	-30	-27	4
[Q]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15	-9	-18	-17
[R] 예술, 스포츠, 여가	-10	-14	-20	-4
[S] 협회, 단체, 수리	10	2	12	15
기타	-3	-3	-4	-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제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폭 둔화

2015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큰 폭의 감소로 전체 비임금근로자 감소가 한동안 지속되다가 2016년 상반기 이후 자영업자 모두 증가로 전환되었다. 2016년 1~10월 평균으로 봤을 때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33천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12천 명이 감소하지만 비교적 최근인 3/4분기의 경우 각각 1천 명, 51천 명 증가<sup>1)</sup>를 기록하며 최근으로 올수록 자영업자 증가 경향이 더욱 크게 관찰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가장 많은 자영업자가 분포되어 있는 음식숙박업(10.4%) 및 도소매업(약 21.3%)에서 3분기 각각 39천 명, 24천 명 증가하면서 최근 자영업자 증가를 이끌고 있다. 건설업 경기 호조로 인한 부동산 및 임대업 또한 3분기 26천 명의 취업자 증가를 보였다. 한편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감소가 나타난 제조업 부분에서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1~10월 평균으로는 13천 명, 3분기 평균으로는 24천 명 증가로 2015년 3분기 제조업 자영업자 감소의 기저효과까지 더해져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4. 제조업 고용감소폭 확대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구조조정,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고용이 큰 폭의 축소(7월부터)를 보이는 한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건설업 취업자 증가 전환(8월부터), 자영업자 증가 전환에 따른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가 올해 나타나고 있는 주된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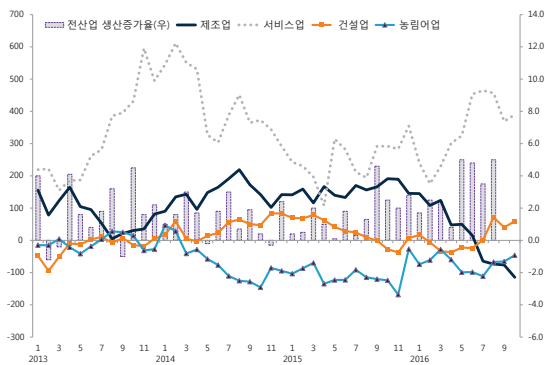
제조업은 올해 상반기 고용증가폭이 점차 축소되어 지난 7월부터 상용직을 중심으로 고용감소폭이 점차 커지는 중이다. 2016년 3분기 제조업 상용직은 전년동기대비 83천 명 감소하여 지난 동기 168천 명 증가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중 약 70%를 차지하는 40대 이하에서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난 반면, 50

1) 농업 및 광업을 제외한다면, 3/4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0천 명 증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1천 명 증가

[그림 7]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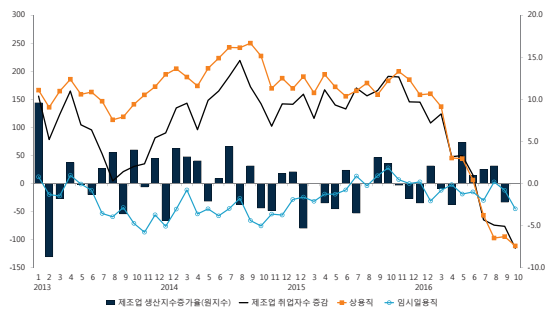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전산업생산지수」, KOSIS.

[그림 8] 제조업 취업자 증감(좌측)·  
생산지수증가율(우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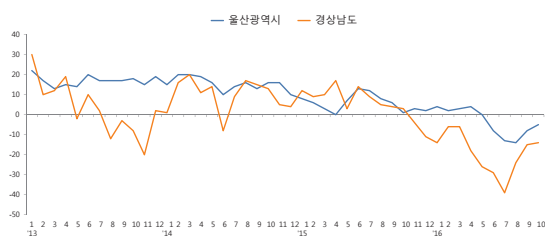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KOSIS.

[그림 9]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제조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지난 3분기 76천 명 증가하였다. 조선업 구조조정 같은 큰 충격은 어느 연령대든 피해가기 어렵겠지만, 50세 이상 고령층은 식료품, 의복 제조업 같은 경공업이나, 비금속 광물제조업(시멘트 등),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같은 건설업 경

기와 관련이 있는 제조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젊은층에 비해 고용비중이 높고, 상기 업종들에서 50세 이상 고령층은 자영업으로 일하는 비중도 높은 편인데, 최근 건설업 경기가 좋고 제조업 자영업 증가도 고령층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연령대별 다른 고용증가 양상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직업별로 보면 40대 이하 연령층의 제조업 고용감소는 주로 생산직에서 나타났다(3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기능원+장치·기계조작 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142천 명 감소). 반면, 50세 이상 고령층은 기능원 종사자에서 지난 3분기 38천 명 증가하였고 장치·기계조작 종사자에서는 36천 명 증가하였다.

또한 울산과 경남 지역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비중은 2015년 10월 기준 29.8%, 25.7%로 높게 나타났는데,<sup>2)</sup> 최근 두 지역의 취업자 감소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이슈가 내년 상반기까지 제조업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수출부진, 제조업 재고율 증가, 금융위기 이후 평균가동률 최저 수준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제조업 고용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5. 자영업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확대

올해 3분기 전년동기대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은 자영업자가 증가 전환하면서 2014년 1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전년동분기대비 430천 명 증가). 서비스업 취업자 확대는 제조업 고용둔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하방압력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개선이 서비스업 고용증가폭 확대의 주요 원인이며, 30~40대 연령층의 서비스업 고용도 증가하였다.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16년 1~10월 기준 55세 이상 고령층으로 264천 명이 증가하여 동기간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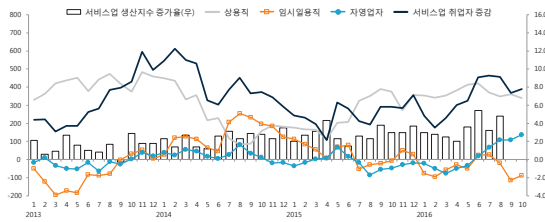
**제조업 구조조정의 하방압력을  
서비스업 자영업자 증가가 상쇄**

2)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0]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좌축)·생산지수증가율(우축)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표 4〉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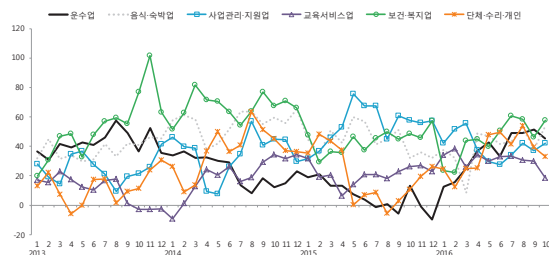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3	2014	2015	2014 1~10	2015 1~10	2016 1~10
서비스업	318	424	250	445	236	341
도매 및 소매업	-29	132	-8	133	11	-61
운수업	34	-6	2	-3	2	5
숙박 및 음식점업	64	127	81	133	82	99
출판·영상·방송 등	-8	22	58	21	57	11
금융 및 보험업	22	-26	-48	-23	-55	6
부동산 및 임대업	-1	22	27	26	23	36
전문·과학 등	-6	3	23	2	17	60
사업시설관리 등	57	7	68	0	69	47
공공행정·국방 등	14	-8	-21	0	-37	62
교육서비스업	4	59	11	58	11	23
보건·사회복지 등	155	139	77	136	79	82
예술·스포츠 등	-17	1	31	0	36	-25
협회 등	26	-13	-22	-4	-31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1]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규모 변화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2016년 8월부터 취업자 증가가  
 지속 중인 건설업은 기분양  
 건설물량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므로 내년에도 고용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증가 341천 명의 약 78%에 해당되었다. 서비스업 고령층 취업자는 2016년 1~10월 기준 75.6%가 도소매업(18.6%), 운수업(12.3%), 음식·숙박업(12.7%), 사업관리·지원업(13.1%), 보건·복지업(9.0%), 단체·개인·수리업(9.9%)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업종에서 고령층은 주로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등 저임금 근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 서비스 직업군에서 54천명, 단순노무직 48천 명이 증가하여 일자리의 질은 낮음을 보여준다.

올해 1~10월 서비스업 세부산업별로는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공공행정, 보건·복지업에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14년 4월 이후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어 오던 금융·보험업도 올해 하반기 고용증가로 전환된 상태이다. 반면 지난해 8월 이후 큰 폭의 취업자 감소를 보이던 도소매업이 올해 서비스업 고용시장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감소폭을 줄이고 있다.

## 6. 건설업 고용증가

2015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과는 달리 분양시장 활성화에 따라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 고용은 2015년 하반기 이후 고용부진이 지속되었으나 2016년 8월부터 증가 전환하여 5만 명 내외의 고용증가를 보이고 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은 2015년 말부터 증가 전환하였으나, 일용직이 2016년 8월 들어서야 증가 전환되면서 건설업 고용증가가 시작되었다. 상용직은 주로 건설관련 전문가에서 증가했으며, 일용직은 주로 55세 이상 고령층,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시장이 위축되더라도 기분양물량 공사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므로, 증가 전환된 건설업 취업자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건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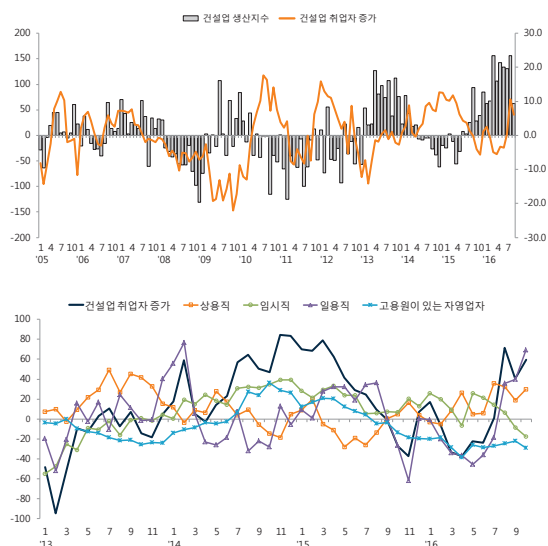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4	2015 1분기	2015 2분기	2015 3분기	2015 4분기	2016 1분기	2016 2분기	2016 3분기	2016 1~10월
건설업 취업자 전체	42	72	44	11	-19	-7	-28	38	7
성별									
남자	31	56	43	12	-16	12	-20	34	13
종사상지위									
상용직	4	8	-19	-13	8	0	12	29	15
임시직	25	26	27	6	13	18	14	4	9
일용직	0	13	28	24	-29	-18	-39	19	-5
비임금 근로자	13	25	9	-6	-11	-7	-14	-14	-13
연령별									
20대	2	0	-8	-20	-28	-13	7	4	1
30대	-12	4	-20	-22	-10	-3	-6	1	-3
40대	-8	-10	11	5	-14	-12	-61	-31	-34
50대	31	55	51	29	26	3	23	29	20
55~59세	19	41	29	31	33	25	32	32	29
60세 이상	29	25	9	16	5	15	9	34	22
직종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	-21	-27	-18	-9	-4	11	22	10
단순노무 종사자	-17	4	-8	5	-16	4	1	44	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2〉 건설업 취업자 증감(좌축)·생산지수증가율(우축)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건설업경기동향조사」, KOSIS.

## Ⅲ. 2016년 하반기 및 2017년 고용전망

한국은행은 2017년 신흥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아 경제성장에서 수출기여도가 점차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 정부의 노력으로 내수 기여도 또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시나리오에 근거해 볼 때 내년 취업자 증가는 284천 명으로 올해보다 소폭 둔화된 규모의 취업자 성장이 기대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둔화 양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취업자 수 증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잠재성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로의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 전망 경로와 마찬가지로 고용 역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형태로 상반기에는 274천 명, 하반기에는 294

〈표 6〉 한국노동연구원 2016년 하반기, 2017년 고용지표 전망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상반	하반p	연간p	상반p	하반p	연간p
경제성장률	3.0	2.5	2.7	2.5	3.0	2.8
15세 이상 인구	43,331	43,519	43,425	43,710	43,930	43,820
경제활동인구	27,062	27,431	27,246	27,397	27,780	27,589
경제활동참가율	62.5	63.0	62.7	62.7	63.2	63.0
취업자	25,971	26,493	26,232	26,245	26,788	26,516
(증가율)	1.1	1.2	1.1	1.1	1.1	1.1
(증감수)	288	303	296	274	294	284
실업자	1,091	937	1,014	1,152	993	1,072
실업률	4.0	3.4	3.7	4.2	3.6	3.9
고용률	59.9	60.9	60.4	60.0	61.0	60.5
비경제활동인구	16,269	16,088	16,179	16,313	16,150	16,231

주: p는 전망치이고,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고용지표는 동향분석실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2016~17년 경제전망」 보도자료.

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상반기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4.2%를 기록한 후 하반기에 경기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3.6%를 기록하여 2017년 연간 3.9%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3.9%는 경제위기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최근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지탱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 증가에는 전년동기의 기저효과도 일부 반영되어 있는 한편 최근 경기상황의 반영으로 임금근로자 증가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신 자영업을 창업하거나, 한계자영업자의 퇴출이 지연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추세가 내년까지 지속되면 고용의 양적 수준은 유지되겠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과 가계부채에는 적신호일 것이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50대 인구는 올해보다 증가폭이 더 둔화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에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60세 이상 인구는 크게 늘겠지만, 은퇴연령 특성상 취업으로 모두 연결되지는 않으며,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상저하고(上低下高) 형태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상황도 개선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면 하반기 회복도 어려울 수 있다.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내년 취업자 수는 하반기 들어  
경기여건이 개선된다면 다소  
증가폭이 커질 수 있겠지만,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